

“재혼해도 못 버려!”...남 ‘가족사진’, 여 ‘명품 선물’

돌싱(돌아온 싱글)들이 재혼 후에도 버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전 배우자 관련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? 남성은 ‘가족사진’, 여성은 ‘명품 선물’이 가장 많았다.

17일 ‘뉴시스’에 따르면 한국의 재혼 결혼정보회사 ‘온리-유’와 결혼정보업체 ‘비에나레’는 지난 10월~15일 전국의 (황혼)재혼 희망 돌싱남녀 512명(남녀 각각 256명)을 대상으로 두 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.

결과에 따르면 ‘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흔적 중 가장 버리기 힘들 것은 무엇일까’란 질문에 남성 35.2%는 ‘가족사진’, 여성 37.1%는 ‘명품 선물’을 가장 먼저 꼽았다.

이어 남성은 ‘추억 깃든 물건’ (30.1%), ‘고가의 가재도구’ (22.3%), ‘명품 선물’ (12.4%) 등의 순이었다. 여성은 ‘고가의 가재도구’ (27.7%), ‘가족사진’ (18.0%), ‘추억 깃든 물건’ (17.2%) 등으로 나타났다.

온리-유 관계자는 “가장이었던 남성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전 배우자와 자녀 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쉽게 처분하기 어려워하고, 여성은 전남편이 사준 고가의 명품 백이나 장신구 등을 이혼한 후에도 계속 간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.”고 분석했다.

재혼 후 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. 남성은 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(39.4%), 여성은 ‘친손주 돌봐줄 때’ (37.1%)가 가장 많았다. 2위는 남녀 모두 ‘전자녀 뒷바라지’ (남성 33.2%·여성 29.7%)를 들었다.

이어 남성은 ‘전자녀와의 만남’ (18.4%)과 ‘친손주 돌봐줄 때’ (9.0%), 여성은 ‘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



▲ 재혼 후에도 가장 버리기 힘든 것으로 남성은 전 가족사진을 여성은 전남편의 명품 선물을 꼽았다. 사진=shutterstock

원’ (19.9%)과 ‘전자녀와의 만남’ (13.3%) 등으로 답했다.

온리-유 관계자는 “남성들은 전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싶고, 여성은 자녀가 결혼해 출산하면 돌봐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”이라며 “그러나 배우자 입장에서 상대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정도가 지나치면 곱게 보이지 않으므로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.”고 조언했다.

‘재혼 후 부부 생활 중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나’란 질문에도 남녀 간 의견이 달랐다. 남성은 ‘전 배우자 부르던 호칭 사용’ (35.2%)과 ‘전 배우자의 장점 언급’ (28.1%), ‘본인 자녀와 배우자 자녀의 이름 혼동’ (20.3%) 등의 답변이 1~3위를 차지했다.

여성들은 ‘본인 자녀와 배우자 자녀의 이름 혼동’ (31.3%), ‘전 배우자 부르던 호칭 사용’ (27.7%), ‘전 배우자의 장점 언급’ (24.2%)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. 네 번째로는 남녀 모두 ‘전 배우자와의 추억 언급’ (남성 16.4%·여성 16.8%)을 꼽았다.

Queen Spa

정통 지압 여성 전용

Foot(30min) & Body(30min)
발(30분) + 바디(30분)
\$50

Body Massage (1hour)
지압 (1시간)
\$60

GG 퀸스파
714.591.5260
9858 Garden Grove Blvd.
Garden Grove, CA 92844

용문루

GRAND OPENING

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
Eat Good, Feel Good

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

파티룸 10~50명 수용 가능

* waiter, waitress 구합니다.*

용문루 T.626.363.4961

www.yongmoonlu.com

월,수,목,금 11:30am ~ 3:00pm
4:30pm ~ 9:00pm

토,일 11:30am ~ 9:00pm

19240 Colima Rd. Rowland Heights, CA 91748